

지역 소식통

완주 상관면 의용소방대
코로나 방역활동 실시

완주군 상관면 의용소방대(남대장 김수희, 여대장 한숙화)가 마을을 철봉 방역하고 있다.

13일 상관면에 따르면 의용소방대는 지난 8일과 12일 관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활동을 전개했다.

의용소방대원 40여명은 지난 12일 비가 오는 가운데 면사무소와 농협, 우체국, 파출소 등 공공기관과 지류빌아파트 상가 및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했다.

국내 코로나 환자가 600명을 오르내리고 있고 관내에서도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방역강화가 필요한 시기에 진행돼 주민들은 높은 호응을 받았다.

상관면 의용소방대는 매월 한 번씩 상관면 관내 주요 도로변과 생활주변에서 쓰레기 줍기 등 자발적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장애인단체를 찾아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완주=이중복기자

김제시 교통골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날 공모 선정

김제시 교통골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가 주관하여 작은도서관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2021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 독서 문화 예술 활동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매월 마지막 주 문화예술 전 문가와 함께 4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4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은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 도서관에서 만나는 화가라는 주제로 빈센트 반고흐, 세상을 노랗게 물들이다의 저자 문화영 작가를 모시고 관내 청소년 15명과 함께 고흐의 삶과 작품세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제=곽노태기자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완주군, 19일부터 선착순 119가구 지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자 대상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한다.

13일 완주군은 오는 19일부터 1억 200만원(도비 300만원, 군비 900만원)을 들여 선착순 119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그린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태양광(3kw) 기준 가구당 국비 230만원과 함께 지방비 100만원(도비 24만원, 군비 76만원)을 지원 받게 되며, 신청가구는 13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다. 설치 희망자는 1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문 시공업체로 선정된 참여기업을 선택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 지원대상사업 승인을 받은 후 군 일자리경제과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전기료 절감효과와 함께 완주군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에너지 환경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출수기가 13일에서 15일로 예상되므로 출수기 붉은곰팡이병 발생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발생 초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보리붉은곰팡이병 예방하세요’

초기 방제 중요... 배수로 정비·적용약제 살포 당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에서는 출수기가 13일에서 15일로 예상되므로 출수기 붉은곰팡이병 발생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발생 초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보리 붉은곰팡이병(적미병)은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병으로 보리 이삭이 패는 시기부터 이삭이 여물기 이전까지 비가 잦고 95% 이상의 상대습도가 3~5일간 지속될 경우 병 발생이 급격히 늘어난다.

김제지역 3월 평균기온이 7.4°C로 맥류 출수기가 평년과 비슷 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수기에 맞춰 앞

로 약제방제와 포장관리가 중요하다며 병 방제를 위해 보리밭 습도가 높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이삭이 패는 시기나 병 발생 초기에 키판 등 적용약제를 살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리 붉은곰팡이병은 초기방제가 매우 중요하며 보리밭 배수로 정비와 적용약제 살포만으로도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포스코 임원진, 현대차 전주공장 방문

포스코 임원진(김광수 부사장, 유병욱 부사장, 조주익 상무) 등이 13(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포스코 제철소 내 운영트럭 1,500여대를 향후 수소차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수소전기트럭 생산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포스코 임원진들은 수소전기트럭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생산시스템을 점검하고, 현대차 측으로부터 수소상용차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브리핑 받았다.

이들은 또 시승용으로 준비된 수소전기트럭을 타고 주행시험을 겸해 완주수소충전소 등을 둘러보며 수소상용차 운영시스템을 점검했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포스코는 지난 2월 양측 최고경영진이 만나 수소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소동맹'을 맺은 바 있



다. 이 업무협약을 토대로 현대자동차는 포항 및 광양 제철소에서 운영 중인 업무용 트럭 1,500여대 전량을 수소전기트럭으로 교체 공급기로

했으며, 포스코는 수소 생산 및 공급,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기술 공동개발 등 수소 관련 사업을 현대자동차와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이중복기자

김제애 함께사는 즐거움 '웨딩라이프' 행복수기 공모전

4월12일부터 5월11일까지 1개월간 접수

김제시는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결혼과 출산장려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웨딩-라이프 행복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5.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비혼과 만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결혼으로 인해 더욱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함께 공유하며 결혼선호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김제시에 살면서 주소를 둔 (신혼)부부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출품주제는 ▲만남에서 결혼까지 행복한

가족의 완성 ▲김제 신혼일기 ▲결혼축하금 등 삶의 든든한 결혼장려시책 ▲결혼으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 ▲싱글보다 커플(부부)이 더 좋은 이유 등으로 생활수기 형식으로 작성, 1인당 한 작품씩 제출할 수 있다.

1. 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2명) 30만원, 장려상(3명) 20만원의 김제사랑상품권을 시상하게 되며 향후 수기집 발간 및 김제정책, 결혼장려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제시 홈페이지(www.gimje.go.kr) 고시공고에서 응모신청서 및 작성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인 구성장팀(☎063-540-3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제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결혼을 미루는 사례가 없도록 신혼초기 생활안정을 위해 결혼축하금을 전국최고액인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200만원~1,000만원) 및 청년주거안정 3중 패키지 정책인 청년부부주택수당(월10만원, 3년)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이자(연최대 200만원), 행복주택 임대 보증금(최대 2,000만원)지원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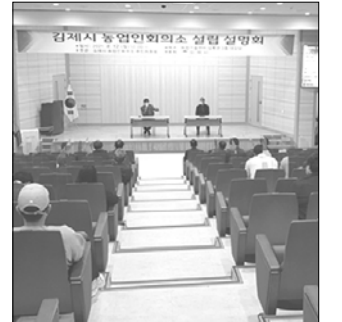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설명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 상록관 3층 대강당에서 농어업인단체와 농어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의 주요 공약인 농어업회의소는 다양한 농어업계의 권익 및 실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 대의기구로서 농어업 주체의 참여를 통해 생생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고, 지역 농어업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윤양진 익산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으로 부터 익산시 설립 사례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바로 이어 이승종 인력육성팀장이 나서 김제시 맞춤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의 필요성,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김제시는 앞으로 다소 생소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농어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추진하고, 관련 지원 조례 제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회원 모집에



나서는 등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농어업 주체들의 농어업 역량을 결집시켜 지속 가능한 김제시 농어업 발전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미래 농정 혁신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농어업회의소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농어업회의소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소통하는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